

“유엔기후협약 총회 남해안남중권서 개최해야”

전남·경남 국회의원 14명 결의문 여수시 “동서화합·국가균형발전”

전남과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남해안남중권 개최를 공식 제안한 것에 대해 여수시가 크게 환영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COP28의 남해안남중권 유치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조당적으로 힘을 모아준 데 대해 감사하다”면서 “동서화합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COP28은 여수를 중심으로 하는 남해안남중권에서 개최돼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과 경남지역 국회의원 14명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COP28 개최지를 남해안남중권으로 선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여 의원은 이개호, 서삼석, 신정훈, 김승남, 윤재갑, 소병철, 주철현, 김희재, 서동용, 김원이 의원 등 전남지역 10명과 박대출, 김태호, 하영제, 강민국 의원 등 경남지역 4명 등 총 14명이다.



전남과 경남지역 국회의원 14명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COP28 개최지를 남해안남중권으로 선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희재 국회의원실 제공)

이들 의원은 결의문에서 “현재 정부는 개최국이 확정된 이후 개최지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남해안남중권 시민들의 노력을 배제하고 단순히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올림픽이나 박람회처럼 개최국 확정 이전에 개최도시를 선정해 지자체간 소모적 갈등을 해

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7월29일 기획재정부에서 COP28을 국제행사로 승인한 것은 남해안남중권이 최초 제안하고 13년 간 꾸준한 노력의 결과였다”면서 “다른 지역이 뒤늦게 다 된 밥상에 숟가락 올리려는 듯한 유치활동에 대해 남해안남중권 지역

민들의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COP28의 남해안남중권 공동 개최를 위해 조당적으로 협력하고 국회 차원의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활동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전기자동차 보조금 광양시, 추가 지원

승용 109대·화물 94대 대상

광양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2020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조금 추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차량은 전기승용(초소형 포함) 109대, 전기화물(소형) 94대로 출고 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전기승용 1대당 최대 1660만원, 전기초소형 840만원, 전기화물(소형) 264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가능 차종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입 희망자는 전기차 제조·판매점,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지역 법인·기업이며, 개인은 1대, 법인·기업은 3대까지 지원 가능하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고, 추후 차량 폐차 시 배터리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전기차 구매 수요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며 “내연기관차를 친환경 전기차로 대체함으로써 저렴한 유지비는 물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시 ‘문화재야행’ 문화재청장상 수상



순천시는 문화재야행 프로그램 ‘소강남 순천’이 문화재청 주관 ‘2020년 지역문화재 활용 평가’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순천시는 올해 10월 말 오프라인, 11월 초 온라인으로 문화재야행 ‘소강남 순천’을 개최, 순천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역사문화와 관련된 강의를 통해 지역을 알리는 프로그램과 문화재 관련 만화 제작, 문화 영상을 통해 비대면 콘텐츠를 강화했다.

‘소강남 순천’은 수준높은 체험프로그램을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순천시는 지난 2016년 처음 문화재야행을 시작해 5년 연속 순천시 향동 문화거리 일원에서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또 내년 공모 사업에도 선정돼 6년 연속 문화재야행 개최도시가 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문화재야행은 순천의 역사와 문화가 중심이 되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지역을 재발견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디지털 격차 해소 ‘SW·AI 교육’ 머리 맞대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여수서 토론회 열어

여수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교육 토론회’가 열렸다.

10일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10일 여수 유람마리나호텔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남도, 전남도교육청 등이 주최한 ‘SW·AI교육 자력제고 개선 온라인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수환 총선대 교수가 ‘SW·AI교육 관련 자력 국내외 현황 및 발전방안’을, 김정량 광주교육대 교수는 ‘SW교육 강

사 자력개발 현황 및 적용방안’을, 전수진 호서대 교수는 ‘SW교육 강사 자격 설계 및 파일럿 테스트 결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종합토론회에서는 김홍래 춘천교육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수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팀장,

이현희 전남도교육청 과장, 이원주 한국컴퓨터정보학회 수석부회장, 정진명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부장, 임춘성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실장 등이 ‘SW·AI교육의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국내 전문가 100여 명이 참가해 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및 의견을 나눴다.

이준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최근 SW·AI 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소프트웨어 교육 분야 민간 자격 품질 향상 및 관리를 위한 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수준 높은 SW·AI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 기차당뚝방마켓 코로나 속 매출 30% 증가

전년 60%수준 개장에도 판매액 2억 내년에는 시제품·먹거리 개발 계획

전남 대표 플라마켓인 곡성군 기차당뚝방마켓이 코로나19 상황에도 매출이 크게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곡성군에 따르면 올해 뚝방마켓은 지난해의 60% 수준인 16차례 문을 열어 방문객 2만5000여명, 판매액 2억3000여만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방문객 수는 줄었지만, 판매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뚝방마켓 측은 개장 5년째를 맞아 높아진 위상이 신규 판매자의 증가로 이어졌고,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품목을 발굴하기 위한 곡성군과 조합, 판매자의 노력이 시너지를 낸 결과라고 평가했

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개장이 미뤄지다 철저한 방역 속에서 지난 5월10일 첫 손님에 맞았다. 조합과 곡성군은 ‘방역과 일상이 조화된 안전한 마켓’ 운영으로 집체한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고자 노력했다.

특히 올해는 뚝방마켓의 상징 색깔인 노란색의 급계국을 하천 주변에 심었고, 건강조각전과 뚝방 정원 등 다양한 예술·문화 행사도 선보였다.

내년에는 관광두레 공모사업을 통해 뚝방마켓 ‘BI’를 입힌 시제품과 먹거리를 개발할 계획이다. 곡성 기차당뚝방마켓은 내년 2월까지 휴장된 뒤 다시 문을 열 예정이다.

뚝방마켓 관계자는 “휴장 기간 열심히 준비해 내년에도 일상과 방역이 조화되는 안전하고 품격있는 마켓으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전남 대표 플라마켓인 곡성 기차당뚝방마켓이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보다 매출이 30% 신장됐다. (곡성군 제공)



도서출판 상상인

NEXT

상상인을 찾습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에서는 우수한 시집원고를 모집합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은 재능있는 시인들의 작품집 발간을 위해 우수한 시집원고를 수시 공모합니다. 접수받은 원고는 매분기 엄정한 심의를 거쳐 작품집으로 출간됩니다.

107인의 신춘문에 출신들의 상상(앤솔로지)을 시작으로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총 9권을 발간하였으며 발간 예정인 시집들도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집뿐만 아니라 평론집, 시조집, 동시집 등 다양한 작품집을 발간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도서출판 상상인은 문학사업의 일환으로 상상인 창작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우수한 시집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원고 보내실 곳 E-mail : ssaangin@hanmail.net
- 모집원고 : 시집 한 권 분량(시 50편 이상)
- 출간혜택 : 선인세 일백만원, 해설비 지급 등을 통하여 시집 제작. (필요시 저자는 정가의 70%에 구입)
- 문 의 : 010-7371-1871

지금까지 출간된
상상인 시선



상상 (앤솔로지)



봄이 제 몸을 뒀다
김유석



오렌지 나무를 해단으로 칠개요
최지하



새, 블랙박스
양수덕



방울을 울리며 낙타가 온다
이선애



그녀의 외로움은 B형
-새 글러브 중독자-
마경덕



사과상자의 이설
전다형



당신에게는 이르지 못했다
권혁재



메타자본세라이어 시선
강대선

* 7월 발간
김남수 시집 - 등근 것을 보면 아프다

* 8월 발간
정영주 시집